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신명 30,10-14
[화답송]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과 37(◎ 33 참조)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중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제 2독서] 콜로 1,15-20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루카 10,25-37

성가	8시 미사	입당 41	봉헌 -	성체 169 180	파견 31
	11시 미사	입당 41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69 180	파견 3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15주일(7월 14일)		연중 제 16주일(7월 21일)		연중 제 17주일(7월 28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이레이몬드(창용)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전베로니카(진영)	허세실리아(홍숙)	서테레사(춘애)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착한 사마리아인

지난 6일, 우리 인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비행기 추락사고 치고는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희생적인 구조 활동이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오랜만에 훈훈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자신도 꼬리뼈가 다친 상황인데도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승무원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연상시켜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심이 사나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에는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에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이 소개되는데, 율법교사의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루카10,25)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 스스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시고, 이어서 율법교사가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립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제와 레위인은 그를 외면하며, 길 반대쪽으로 지나쳐 버리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를 치유 해 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으며, 주인에게 돈을 주며,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아 주겠다고 부탁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비유에 이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

라.” (루카10,37)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한 대답이십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돌아서는 어떤 사제나 레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모두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체할 수 없는 천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30,14) 우리도 모두 착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핑계 없이 바로 실천하세요!

옛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일든지 핑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따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어찌하여 따 먹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은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계속해서 여자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자신을 꾀어 따 먹게 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은 하느님으로부터 각각 벌을 받게 됩니다.(창세 3 참조) 오늘 제 1독서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서에 쓰인 하느님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신명 30,12) 결국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수석 사제들도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마태 27,42)

여기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핑계를 통해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강도에게 얻어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길거리에 방치된 시체와 접촉하였을 때는 죄를 짓고 부정한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 한동안 격리되어 참회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종교 행사를 주관할지도 모르는 종교 지도자로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레위 21,1.11; 22,4-6 참조)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서는 왜 어떤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으로 소개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두고 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농담이 발전해서 ‘머리가 나쁘면 당장 고생한다.’ 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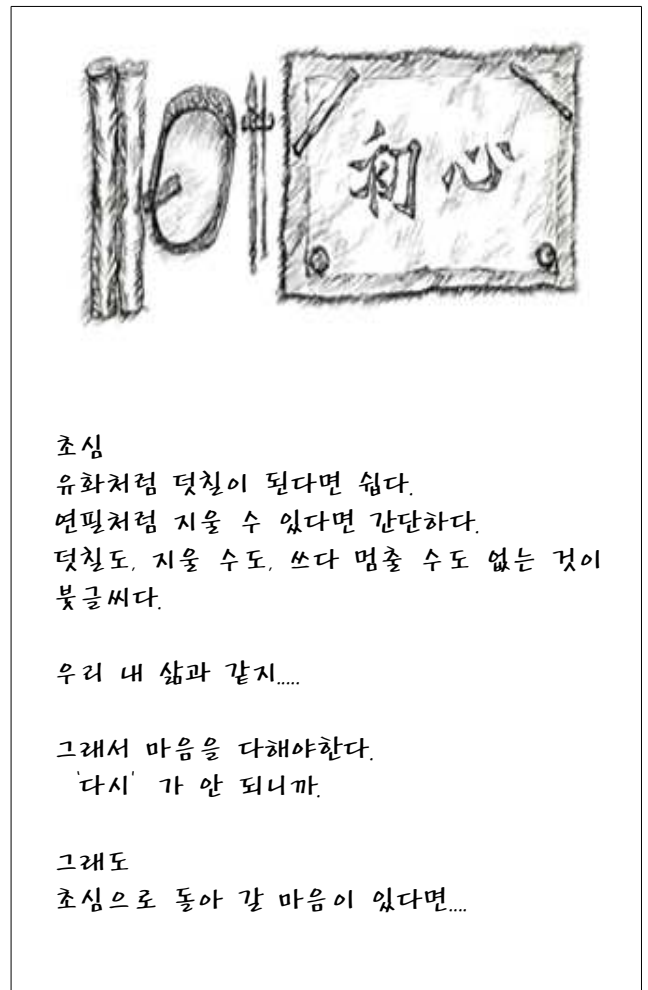
적합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바로

지금’ (right now)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면서 하느님 계명의 실천을 늦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계명을 들은 그 즉시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골로 1,16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사업을 지체할 그 어떤 핑계거리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말씀의 향기

벼랑 끝으로 오라

옛 중국의 선사 석상(石霜)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백 척이나 높은 작대기 끝에서 어떻게 하면 걸을 수가 있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백 척이나 높은 작대기에 올라가 능히 앉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진리에 이른 것은 아니다.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발자국 나가보라. 그렇게 되면 시방세계의 모든 진리를 보게 되리라.”

제가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매 순간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백 척 작대기 위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는 되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처럼 괴롭히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온갖 걱정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길한 망상 때문인데 어쩌서 일어나지도 않은 현상을 미리 가불해서 앞당겨 근심하고 있던 말인가. 저는 몇 날 며칠을 제 불안에 대한 정체를 직시해 보려 했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 단순하게 살지 않는다면 인내심을 갖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공공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쉬지 않고 안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소화 데레사의 말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집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사리분별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골수인 금강경에는 이런 명구가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선승 황벽(黃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감이 없고,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움이 없다.(前際無去 今際無住 後際無來) 주님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못 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마태 6,34)

제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인 제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기보다 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더 믿어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의 머리 카락까지도 날날이다 세고 계신 아버지께서 제 날개를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백척간두에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일이며, 성난 파도를 잠재우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차마를 뒤집어쓰고 인당수의 깊은 바다에 몸을 던지는 길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 벼랑 끝으로 오라. / 그들이 대답했다. / 우린 두려웁습니다. / 그가 다시 말했다. / 벼랑 끝으로 오라. / 그들이 왔다. /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과거를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날개를 가진 거룩한 천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입니다.(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엄밀한 의미의 안락사는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그 본성에서나 의도에서 죽음을 야기 시키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항

가톨릭전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죄와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죄악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성부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하시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셔서 교회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현실 세계 안에서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에 몰두해 있고, 교회는 세상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당신의 교회 안에 현존하지만, 아직은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루카 21:27) 오시는 왕의 지상 내림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로 악의 세력의 뿌리는 정복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1항).

왜 예수님의 승리가 이 세상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을 일거에 치워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 의지는 무시되고 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당신께로 돌아오기 바라시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 지상에서 순례하는 교회

하느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상의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신앙으로 응답하며 시작되었지만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악의 세력과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와 하느님의 위안을 통하여 그 여정을 계속하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면서 전진한다” (교회헌장 8항).

하느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깨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마치도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도 같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소식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

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아내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아내라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교회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대림절을 지내면서 참된 기다림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기 위하여 특히 성찬 전례 중에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시 22:20)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1항).

3) 순례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삶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깊이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막연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여정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틀렸다”라고 말하며 기다림을 포기할 때, 그들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날 이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남편을 막연히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계속 남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기다리는 아내와 같습니다.

4)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판은 오히려 기쁜 소식입니다. 순례하는 교회로서 고통스런 기다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재림과 심판은 그토록 고대하던 기다림이 보답을 얻는 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으며,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총을 거절한 사람은 저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며, 각자가 한 일에 따라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의 성령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자초하게 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79항).

강신모 신부/인천교구 선교 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향	봉헌자
7월 14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윤사비나
	연 윤바오로(광의)	정데레사(혜경)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Im Brunk	안마리아(은순)
	연 김바오로/이마리아	이아나스타시아
	생 요아킴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육아오스딩 건강	육아가다
	생 흥타데오(철)	이안나(순자)
	생 조요셉(승구) 가족	조데레사
	생 조베드로(찬구) 가족	조데레사
7월 16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황식	황안나(정희)
7월 17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7월 19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7월 20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7	221	36	344
헌 금	\$511	\$1,147	\$47	\$1,705

< 교무금 > \$4,910

정병구(7-8) 권영현(7-8) 배젼마(5-6) 김순이(7)
 송분학(7) 전숙희(7) 황정희(7) 채용분(7)
 김관숙(7) 조진행(2-6) 이현옥(1-6) 윤덕림(7-8)
 김옥녀(7) 김영희(7) 허동원(7) 김정복(7)
 이순열(7-8) 조승구(5-7) 정진희(7) 전문자(7)
 정옥임(5-6) 임윤택(7) 이선희(6-7) 이명란(7)
 이창용(3-6) 김승우(6)

< 성소후원금 > \$260

정병구(7-8) 김순이(7) 송분학(7) 전숙희(7)
 채용분(7) 조진행(1-5) 정진희(7) 김정복(7)
 임윤택(7) 이선희(6-7) 이명란(7)

< Bishop's Appeal >

조진행(1-6)

< 감사헌금 > 조승구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0,030
 * 총 납입 \$44,480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박영자, 윤종진, 김영순, 허홍숙, 익명, 정병구
 박상일, 이재우, 배젼마, 임윤택, 김관용, 원광희
 뜨락회, 권창모, 별사탕밴드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성물방, 박영자, 조진행, 윤덕림, 정창희, 장찬호
 익명, 윤종진, 김영순, 허홍숙, 익명, 이정훈,
 최윤기, 정병구, 박상일, 이재우, 배젼마, 임윤택
 김관용

~~~~~ 오늘은 장루시아 자매님께서 잔치국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도미니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이 8월 8일입니다.  
영적선물 봉헌서를 친교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십시오.

◆ 오늘 교중미사는 김선류 타데오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 2차 헌금 안내  
7월 21일(다음 주) : Catholic University/Latin America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구역장회의 : 7월 1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장학위원회의 : 7월 14일(오늘) 오전 9시 1회의실  
\* 뜨개질사랑회 첫모임 : 7월 1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평협회의 : 7월 2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독서클럽 첫모임 : 7월 1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도서 : 세상 끝에서 온 교황 프란치스코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Sunday School Summer Camp(접수 : 친교실)  
일시 : 7월 27일(토) - 29(월) 중등부  
7월 29일(월) - 8월 1일(목) 고등부  
장소 : Capital Mountain  
2150 E Weimar Xrd Weimar, CA 95736  
참가비 : 중등부 \$155 고등부 \$195  
Sibling Discount : \$20/person

◆ 장학금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23일 - 8월 11일까지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ageneheo@hotmail.com

◆ 이종철 신부님과 함께 하는 음악피정(오�클랜드 본당)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반  
참가비 : \$20(프로그램, 식사, 간식)  
대상 : 성가대, 성가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 영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 신앙의 해 특강 안내  
일시 : 7월 21일(주일) 오후 1시 - 4시 30분  
주제 : 신앙과 성가  
강의 : 이 종철 베난시오 신부님  
(한국 천주교 성음악 토착화 연구원 원장),  
성가 "주여 당신 종이" 외 다수 작곡  
참가비 : \$10(점심 제공)

◆ 가족사진 및 가훈 접수  
아직 가족사진과 가훈을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은 속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7월 구역모임 |             | 필리피서 1-2장                   |
|---------|-------------|-----------------------------|
| 2 구역    | 7월14일(일) 6시 | 조덕행 에드몬드 덕                  |
| 4 구역    | 7월27일(토)6시반 | 이종규 미카엘 덕                   |
| 7-1구역   | 7월27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8 구역    | 7월28일(일) 5시 | 김세록 제랄드 덕                   |
| 8-2구역   | 7월20일(토) 5시 | Ocean View Park             |
| 9 구역    | 7월20일(토) 6시 | 신병석 피델리스 덕                  |
| 10 구역   | 7월28일(일) 4시 | Rossmoor Hillside Clubhouse |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부산교구 성령채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 성령대회 파견미사 때 미사봉헌을 위한 가정봉헌 및 사업체 봉헌도 함께 접수합니다.  
\* 단체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선착순, 버스비 \$10)

◆ 가톨릭 성서 모임  
\* 20대 이상 미혼 청년 대상 한국어반, 영어반  
창세기부터 9월에 시작  
문의 : 백승진 미카엘 510-730-1524  
\* 기혼남녀반  
- 월화 오전반 & 저녁반(창세기부터)  
봉사자 : 조마오로 수녀님  
- 목금 저녁반(탈출기) : 창세기를 마친 분들에 한함  
봉사자 : 본당신부님  
문의 및 신청 : 사무실

◆ 오늘 친교실에서 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17)

◆ 한인크레딧유니온에서는 회원가입 정보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과 새로 회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은행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영어미사 : 11시 친교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 8/3, 8/10, 8/17 )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